

생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 또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생명체의 특성을 통해 생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먼저 생명체는 스스로 생명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복제)
생명은 생명사슬 즉 DNA안에 있는 유전정보에 의해 최적으로 조직화 되어있습니다.

생명의 기본단위는 세포로서 내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체는 외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생명체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로 비유한다면,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생명정보를 담고 있는 이 DNA와 각각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게놈(genome)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 두 단어를 합성한 말로서 생물 세포에 담긴 유전정보 전체를 뜻합니다.

유전정보는 DNA에 담겨져 있고, 인간지놈을 모두 해독했다는 것은 이 인간 유전자인 DNA의 모든 염기 순서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기라는 것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4가지 성분을 말하는데, A(Adenine), G(Guanine), C(Cytosine), T(Thymin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4개의 염기는 컴퓨터의 +, - 두 개의 부호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 +, - 두 개의 부호를 가지고 모든 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A, G, C, T 네 개의 부호를 가지고 필요한 아미노산과 같은 생명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를 통해 RNA등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아미노산을 만들며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4개의 염기에 의해 암호화된 특정 유전자 정보에 의해 이런 일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울 때 우연히 만들어지고 진화했다는 진화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체계를 가지면서 컴퓨터언어 보다도 더욱 정교한 생명언어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스스로 복잡하게 진화했다는 이론은 오히려 더욱 비논리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일례로 만리장성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생명이 어떤 설계자가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책.

즉,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궁금해?궁금해!」, 한국창조과학회 제공